

산을 향하여

김 명 수
(점검 1부 과장)

움여름은 지독히도 무덥고 지리한 날들이었다. 사무실 에어컨도 아스팔트 열기에 시들해질 시간이면 난 항상 시원한 계곡과 높은 암봉을 살포시 감싸고 도는 바람결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고, 또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 최고봉 EVEREST를 등반하며 떨던 옛 추위생각으로 나 혼자만의 망연한 피서를 보내곤 하였다.

EVEREST!

지구의 제 3의 극지, 만년 빙하와 거대한 지구 주름의 퇴적지대인 모레인의 흐름, 온통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맥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곳, 은빛 찬연한 눈으로 뒤덮인 삼각 봉우리가 하늘을 꿰뚫고 서있는, 원래 이곳 티베트 말로는 초마롱마(세계 어머니의 여신이란 뜻)라 불리우는 이 산은 해발 8천8백48M의 세계 최고봉이다.

그러나 이 산이 초마롱마란 이름보다 에베레스트란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 한것은 1852년 영국의 인도 측량 국장이던 조지 에베레스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영국이 그

당시 처음 발견된 세계 최고봉의 이름을 에베레스트라 칭함으로써 오늘날 에베레스트는 측량 국장으로서의 이름보다 세계 최고봉의 이름으로 더욱 유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17~18C의 유럽의 역사는 자연에 대한 탐험과 도전의 역사였고, 그에 대한 도전의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때였던 만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만큼 끈질기게 인간의 도전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드물다. 그것은 반세기에 걸친 세계 산악인의 탐험과 도전과 희생으로 얼룩진 에베레스트의 역사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발 5,000M 이상의 고도에 따른 산소의 결핍, 고산병, 영하 40~50C를 오가는 혹한, 또는 초속 40~50M의 켈트기류 등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자연의 악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었기에 1953년 영국의 9차 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존 헌트)의 에드먼드 힐라리와 쉐파 텐징이 그 정상에 올랐을때 세계는 그들에게 자연과의



부쟁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서 아낌없는 찬사와 명예와 영광을 그들에게 모두 주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77년 7월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산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었으니, 이는 당대 산악인의 최대의 행운(?)이랄까!

고등 학교 시절부터 막연히 오르던 「산」행위에서 좀더 높이 오르려 했던 사실 밖에 인식치못했던 나에게 있어, 산으로의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최후의 꼭대기에 대한 미련은 남다른 것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를 알고 하나에 충직했고 또 하나만을 얻으려 했던 그 산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무지하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을때 내가 추구하던 산으로의 오름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 질 줄이야!

가도 가도 끝없는 카라반, 질퍽한 정글속을 꿰뚫고 지날때 습격하던 무섭고 징그러운 거머리떼들이며 해발 4000M를 넘고 부터 시작되는 고산병의 증세, 구토와 두통과 …….

무섭게 추운 새벽 3시에 기상, 4시면 출발하던 등행길에서 대낮에 내리 쬐는 일사광은 그 깨끗한 눈빛에 반사되어 나의 얼굴을 온통 태워 놓고, 희박한 산소에 한발 딛고 몰아쉬는 가쁜 숨을 몇번이고 뿔어대며 올라야 하는 고통속에서 나는 이곳에 왜 올라야 하는가? 솔하게 반문하여 보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난 그저 올라야 한다는 사실밖에는 느낄 수 없었다.

77년 9월 중순 고통과 환희와 허탈속에 생활한 EVEREST를 뒤로 하고 전 대원이 베이스 캠프로 철수하여 기자회견을 가진적이 있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산악인이 누구냐고 물기에 난 서슴없이 말로리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로 그가남긴 유명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란 말을 인용, 대답했다.

그 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왜 산에 가느냐? 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지만 말로리의 그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던 산, 즉 자연에 대하여 나 자신 그와

의 투쟁과 모험적인 측면만이 전부였다거나 할까!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사고관념속에 흘러 내려온 서정적인 산만으로는 젊은 나의 행위를 일깨우기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다른 행위의 철학을 발견 못한 상황에서 이 짚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후배에게나 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감히 무어라 이야기 해줄 그 어떤것도 남아 있지 않다.

난 단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만을 찾으려했고 또 그렇게 밖에는 나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찾을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산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서울 근교의 산들은 수많은 등산 인파로 발 들일 틈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중 진정으로 산을 이해하고 또 그곳에서 자연의 깊이 있는 생명에의 흐름을 느낄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들의 대다수는 단지 공해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자연을 이해 하려는 노력은 커녕 자기 도취에 빠져 남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로, 진정 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 하는 이의 눈살을 얼마나 찌프리게 하고 있는가?

자기가 추구하고 그 어떤 대상에 있어서도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법인데!

이제 우리의 산악역사도 깊어졌다.

좀더 성숙된 자세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추구하여야 했다.

올 겨울 우리의 후배들이 다시금 에베레스트를 오르러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등산의 실력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리라!

이제 한 여름을 보내며 모처럼의 휴가가 주어질텐데 나의 마음은 하염없는 계곡의 물소리에 출렁대며, 나의 시선은 하얀 설원이 끝나는 설령선에 머무는 시간이면 더 이상의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잠간실수 후회말고 순간순간 불조심!